



2018 책의 해 기념-국내외 선진공공도서관 탐방  
도서관, 문화를 품다 <11>덴마크왕립도서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안데르센 동화의 인어공주로 잘 알려진 운하도시다. 코펜하겐의 랑겔리니 항구 끝자락 바위 위엔 80cm의 인어공주 동상이 들어서 있다. 유명세에 비해 크기도 작고 볼품도 없는 동상이지만 매년 전세계에서 수백 만명의 여행객이 찾는 코펜하겐의 아이콘이다. 하지만 근래 인어공주를 제치고 덴마크의 국가 브랜드로 떠오르는 명소가 있다. '블랙다이아몬드'(Black Diamond)로 불리는 덴마크 왕립도서관(The Royal Danish Library)이다. 인어공주 동상과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왕립도서관은 스칸디나비아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유럽의 보석'이다.

# 유럽의 '블랙 다이아몬드' ... 중세·현대 공존 '문화심터'



1648년 설립된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구관 내부 열람실.

코펜하겐=글·사진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애칭은 마름모 형태와 검은색 화강암으로 설계된 디자인이 멀리서 보면 반짝이는 것 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졌다. 코펜하겐 운하를 오가는 유람선에서 바라 보는 왕립도서관의 야경은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낼 만큼 화려하기 그지없다.

덴마크 왕립 도서관은 1999년 기존 건축물인 구관과 신관을 연결해 증축한 건물이다. 정식 명칭은 왕립도서관·코펜하겐 대학 도서관. '왕립'이라는 타이틀이 상징하듯 덴마크의 전통과 역사, 미래를 아우르고 있는 신전이기도 하다. 북유럽에서 가장 방대한 3천800만 여점의 도서와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도서관의 위상을 짐작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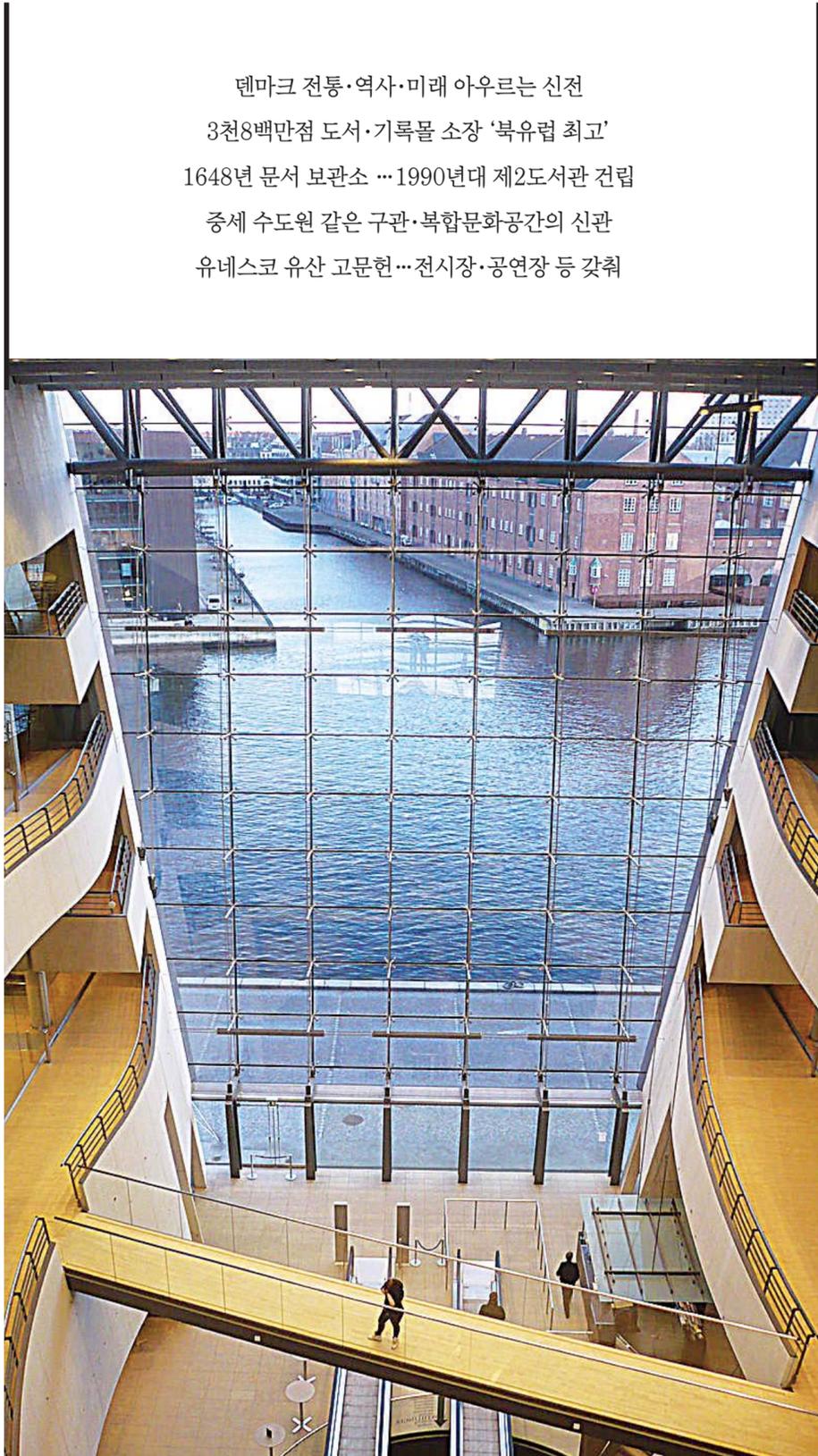
왕립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중세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모던함이 어우러졌다는 점이다. 왕립도서관은 1648년 건립된 이후 300여 년 동안 문서 보관소로 쓰이는 건물에 들어 있다가 1906년 지금의 자리에 새 건물을 지어서 이전했다. 소장도서와 자료들이 늘어나면서 기존의 공간으로는 한계에 이르자 코펜하겐시는 1968년 현대식 직육면체 건물을 증축했다.

하지만 1990년 대 이후 도서관의 패러다임이 보존(preservation)에서 접근(Access)으로 바뀌면서 대대적인 증축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확장과는 스케일이 확연히 다른, 제2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개념이었다.

국책 프로젝트의 첫번째 미션은 도서관의 명성에 걸맞은 화려한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이었다.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덴마크 출신의 건축가 슈미트 하메르 라센(Schmidt Hammer and Lassen)은 예리한 모서리의 검은색 화강암과 운하의 물을 투영하는 유리로 건물외관을 설계했다. 내부는 중앙 한가운데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중심으로 파도 모양의 발코니와 24m 높이의 아트리움으로 수직 분할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 유리를 통해 펼쳐지는 운하의 풍경은 바다를 향해하는 듯한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뒀나뒀나해도 왕립도서관의 매력은 산·구의 조화가 돋보이는 독특한 구조에 있다. 2층에 설계된 일명 구름다리를 건너면 17세기의 고문헌 도서관과 21세기의 디지털 컬렉션이 만나는 시간여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구관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들어서면 마치 중세의 수도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든다. 열람실 역시 여느 공공도서관과는 사뭇 다른 정숙한 분위기가 감돈다. 초록색 램프가 켜져 있는 책상에 앉아 고서를 읽는 시민들의 모습은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중세의 율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구관의 정원을 거닐다 보면 덴마크 출신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동상과 분수를 만날 수 있다.

사료적 가치가 높은 필사본 자료실은 왕립도서관의 품격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수백년의 기록물이 축적된 서고에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원고 및 서신'에서부터 '쇠렌 키르케고르의



코펜하겐 운하를 마주하고 있는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내부 모습. 시민들은 이 곳에서 정보의 바다로 향해하는 특별한 경험을 누린다. <사진제공=덴마크왕립도서관>



'블랙 다이아몬드'로 불리고 있는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전경 모습.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이다.

원고와 기록물', '양계 필사본 단편'(덴마크 최초의 국가연대기 일부) 등 국보급 필사본들이 다수 들어 있다. 왕립도서관의 컬렉션은 지난 1997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구관이 도서관의 전통적인 '보존 기능에 충실하다면 지난 1999년 건립된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연면적 2만1000㎡)의 신관은 아카이브, 전시장, 공연장 등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이 강하다. 하메르 라센은 '사람, 물질, 공간, 빛'을 키워드로 열람실에서부터 콘서트홀, 전시실, 서점, 카페 및 레스토랑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인 킨스홀에서는 매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의 정상급 무대가 연중 펼쳐진다. 또한 왕립 도서관은 매년 2-3개월 단위로 굵직한 기획전을 열어 시민들을 전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퍼포먼스 예술계의 대모'로 불리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Marina Abramovic)의 '특별전-Abramovic Method for Treasure'에서부터 스웨덴 출신의 사진작가 켄트 클리치(Kent Klich)의 '가자지구(Gaza)의 삶'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다.

전시장에서 만난 안나 클레어(46)씨는 "왕립도서관은 정보 뿐 아니라 수준높은 전시회와 공연을 연중 감상할 수 있는 코펜하겐 최고의 문화심터"라면서 "추운 겨울철에는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유명 저자와 작가, 예술인들과 대화를 담은 비디오 영상들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다"고 귀띔했다.

/jhpark@kwangju.co.kr



덴마크 왕립도서관의 구관(왼쪽)과 신관을 이어주는 구름다리.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 2018. 9. 1(토) ~ 11. 30(금)

<p><b>축제 1</b> 객실 가을 패키지</p> <p>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 패키지 <b>60% DC</b></p>	<p><b>축제 2</b> 1층 레스토랑 "테마니" 스파게티 &amp; 스테이크 축제</p> <p>커피 ..... 3,000원  스파게티 ..... 13,000 ~ 16,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 22,000원  돈가스 코스 (햄+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햄+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 50,000원</p>	<p><b>축제 3</b>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p> <p>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b>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b>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p>
---	--	--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